

대상 정보 기술

인터넷방송시스템 InterCaster Cube 출시기념 이벤트

- 초, 중, 고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0일 특별 이벤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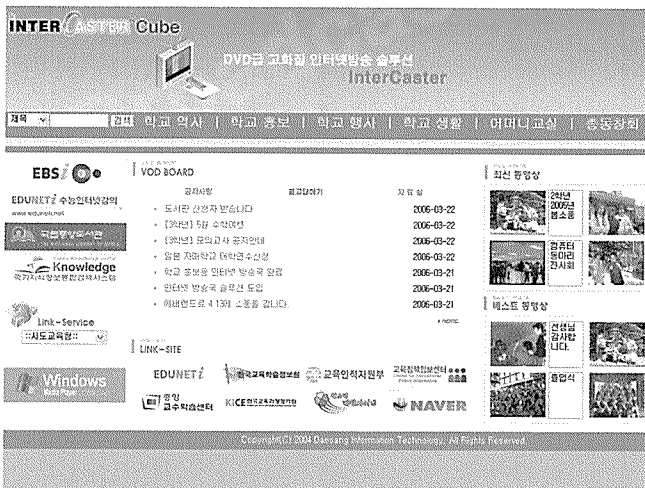


대상정보기술(대표 정용주)은 인터넷 방송 솔루션 InterCaster Cube(인터캐스터 큐브)를 출시하고 출시 기념으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90일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학교의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하드웨어 일체형으로 공급, 개별 구매의 번거로움이나 설치 셋팅의 번거로움에서 완전히 탈피, 인터넷 방송

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드웨어 서버를 랜 포트 연결 후 Power-On만 하면 쉽게 구동되며 복구 소프트웨어와 교육 동영상 자료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운영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도록 하였다.

현재 온라인으로 체험 사이트(<http://cube.daesangit.com>)가 운영 중에 있어 본 솔루션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라면 성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InterCaster Cube는 대상정보기술이 2001년도에 자체 개발한 InterCaster의 지속적인 버전업을 통해 고화질 서비스와 통합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인터넷방송 패키지 솔루션으로서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상에서 시간과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운영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서버에 저장된 미디어 파일을 원본의 손상 없이 DVD급 고화질로 스트리밍 하는 인터넷 방송 통합 솔루션이다.



코오롱 정보 통신

코오롱그룹, 계열사간 합병으로 미래 U-Life를 이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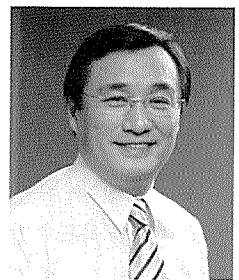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출범

코오롱정보통신(주)와 코오롱인터넷(주) 합병, 6월말 새롭게 출발

IT 서비스 계열사인 코오롱정보통신(주)(대표 변보경)와 수출입 서비스 계열사인 코오롱인터넷(주)가 합병한다. 이번 합병은 양사가 보유한 IT와 수출입 분야의 핵심역량을 하나로 집중시켜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 U-Life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결정되었으며, 5월 22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6월말경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합병의 주체가 되는 코오롱정보통신은 1990년 7월 설립된 종합 IT 서비스 회사로 지난해 4월, AAP 비즈니스 센터를 가동하여 국내 유일의 IBM 서버의 조립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미래 전략 중점사업으로 유비쿼터스 분야를 선정, 5월에 한국 IBM과 MOU를 체결하고, 올해 2월에 애설론사와 제휴, 원격검침시스템에 뛰어드는 등 유비쿼터스 환경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다.

새롭게 출발하는 합병회사는 코오롱정보통신(주)의 IT와 코오롱인터넷(주)의 글로벌 분야의 맨파워 및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거점 확장을 통한 신시장, 신사업을 창출하고 신성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IBM

기업의 효율적인 SOA 도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중심 SOA' 솔루션 발표

한국IBM(대표 이휘성)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SOA를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쉽게 시작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중심 SOA(Business Centric SOA)'를 발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신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함께 발표했다.

SOA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SOA 환경을 도입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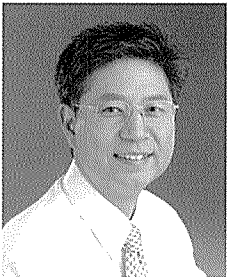


이 없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롭게 발표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전 산업군에 걸쳐 크고 작은 1,800 이상의 SOA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IBM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BM은 이와 같이 SOA 아키텍처를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효율화를 지원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군에 적합한 SOA 도입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IBM은 검증된 베스트 프랙티스와 외부 기관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고객이 SOA 프로젝트에 더욱 쉽게 접근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5개의 엔트리 포인트를 규정했다. 이 5개의 엔트리 포인트는 1) 인력 중심, 2) 프로세스 중심, 3) 정보 중심, 4) 전체적인 연결성, 5) 기존 자산에 대한 재사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으로 IBM은 이와 관련하여 4개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SOA 지원을 위한 산업별 모델을 발표했다.

오픈베이스

법제처 유권해석정보 공유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 기상청 기상정보 DB 구축 사업 등 올해 들어 2건 이상 수주



유무선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인 (주)오픈베이스(대표 정진섭)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정보 공유체계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과 기상청 기상정보 DB 구축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제 1 정부 통합전산센터 3단계(이전2차)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SI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특히, 법제처 유권해석정보 공유체계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오픈베이스가 주관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는 법제처 근대법령 지식정보 DB 구축사업(2004년), 종합법령정보센터 업그레이드 사업(2005년), 근대법령 DB화 구축2차 사업(2005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수주한 기상청 기상정보 DB구축사업은 LG CNS 컨소시엄을 통해 수주한 것으로, 오픈베이스의 대 공공기관 DB구축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사업 수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픈베이스 송규현 사장은 "법제처 및 기상청 법령정보 DB 프로젝트에 대한 연이은 수주를 통해, 당사가 정부의 DB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에 일부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 면서 사업 수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당사는 내부적으로도 SI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수시/정기적으로 채용하여 SI사업에 대해 보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조직상에서

고객사 프로젝트별로 조직된 여러 개의 SI사업팀과 QA(품질보증)팀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과 고객 만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 시스템 통합 사업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기술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웹 취약성 무료점검 서비스' 행사 실시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인 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한달 동안 '웹 취약성 무료 점검 서비스' 행사를 갖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자체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인 WAPPLES(와플)과 호환되는 웹 전용 스캐너를 이용하여 행사기간 동안에 신청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웹 사이트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원격 점검과 취약성 분석 리포트 및 웹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 취약성 무료점검 서비스' 행사 참여를 신청한 고객은 원격 점검을 통해서 'OWASP 10대 웹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서, 국내 게시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성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 여부에 대한 사항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4월17부터 5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펜타시큐리티시스템 홈페이지(www.pentasecurity.com) 를 통해 선착순 350개의 웹 사이트에 대해 접수를 받아 무료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 이후에는 연간 상시 점검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포함하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싸이크론시스템

대검찰청 통합유지보수를 수주

통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e-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싸이크론시스템(대표 공필호)이 4월 12일 대검찰청 통합유지보수를 수주했다. 국내 최초로 서버유지보수를 시작한 싸이크론시스템은 신속한 장애처리, 시스템 성능향상, 데이터 백업관리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